

파견기간	2022.02.21.- 07.09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학 번	2017-10249
파견국가	스위스		소 속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파견대학	EPFL		성 명	장재원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해외에서 동년배의 학생들과 교류하고 함께 공부해보는 경험은 처음 대학에 들어올 때부터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 한 번도 낯선 곳에서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 한 번쯤 나가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그 꿈을 접어두었다가 코로나가 조금 사그러들면 지난 22-1학기에 드디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EPFL은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공과대학교입니다. 스위스의 연방 공과대학 두 군데 중 한 곳이며, QS 순위 20위권의 우수한 대학교입니다. 공과대학이기에 캠퍼스가 서울대만큼 크지는 않으나, 서울대의 관정도서관과 유사한 Rolex Learning Center가 있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실들이 모여있어 공부하기에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캠퍼스 바로 앞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호수인 레만호가 있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유럽 내에서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살기에 매우 쾌적한 곳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한국에서와같이 편하게 다녀도 위협이 없었고 사람들 또한 친절한 편입니다. 제네바 근처에 있는 도시인 로잔은 다른 관광지들과는 다르게 엄청 붐비지는 않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조용하지도 않은 적당해서 좋았던 도시입니다. 특히 늦은 봄부터 레만호수에 들어가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고 항상 호숫가를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다면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EPFL 내에서 생활하는 데에는 영어만으로 충분했지만, 로잔에서 생활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불어 회화 구문을 알고 가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또한, 로잔에서 기차 타고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제네바 공항에는 유럽 대표 저가항공사인 easyjet이 거점으로 잡고 있는 도시라 다양한 주변국들을 비교적 저렴하게 여행 다닐 수 있었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출국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선발되었다면 선발 후 2달 정도 후에 교환학생 지원 안내 메일을 서울대로부터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EPFL 포털을 통해 지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IV. 학업 및 현지 생활 안내 개인정보, 여권사본, 여권 사진, 고등학교정보 등등을 요구합니다. 몇 가지 애매한 항목들이 있어서 긴가민가하면서 최대한 맞춰 적었는데 다

행히 큰일은 없었습니다. 서류제출을 완료한 후 상대교 신청 마감 날짜에서 2주 정도 뒤에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으셨다면 그다음은 스위스 대사관으로 전화하여 인터뷰 날짜를 잡고 비자 영어면접을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고 복잡한 편이라 꼼꼼하게 챙겨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네이버에 스위스교환학생비자 등키워드를 검색하셔서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블로그글들이 매우 잘나와있어요)저는 출국이 빨랐어서 되는대로 바로 준비해서 인터뷰 잡고 인터뷰를 마친 결과 일주일 내로 비자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로잔에 간 후 거주등록을 통해 비자를 한 번 더 받으셔야 합니다.)

비자와 함께 중요한 할 일은 집 구하기입니다. 스위스 집값은 상상을 초월하므로 무조건 기숙사에 입주하세요! 12월쯤 저는 기숙사에 관한 안내를 메일을 통해 받았습니다. 교환학생 로잔에 위치한 fmel이라는 업체에서 기숙사를 운영합니다. www.fmel.ch 에 들어가면 여러 기숙사 목록을 보실 수 있으며 그중 희망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Cedres의 Single room으로 거주했습니다. 방컨디션도 좋고 꽤나 넓은 편이었어서 쾌적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조금 멀어 버스를 갈아타며 다녔지만, 중앙역에 가기 편한 위치였습니다. 주방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형태인데, 제 기숙사의 경우 한 주방을 사용하는 인원이 적은 편이라 좋았고 평일 아침마다 간단한 청소를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자신의 예산과 성향에 따라서 고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출국 후 하긴 했지만, 들을 수업들을 미리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EPFL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학기에 어떤 수업이 열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전공이 교환교에 없어서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시간표가 겹쳐도 수강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현지 학생들은 같은 시간에 수업을 두 개 신청해놓고 번갈아 가면서 듣더군요., 아마 모든 수업들이 출석체크를 하지 않고 녹화본도 올려줘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시험에 통과할 실력을 만드는 것은 본인의 몫이겠지요.

II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떠나지는 않았지만 꽤나 거창한 경험들을 하고 온 지난 7개월의 교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우수한 공학도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옆에서, 그리고 같이 보고 경험할 수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외국의 낯선 환경과 불확실한 상황들을 혼자서 헤쳐나가면서 또 한 번 큰 교훈들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교환학생을 떠나는 분이 제 글을 보게 된다면 교환학생 기간 동안 끊임 없이 움직이고 구경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다 돌아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환상적인 일들은 서울대학교 공대 국제협력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위의 내용으로 본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및 학생 안내,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제출일자	2022-10-12
지원자*	장재원 